

청소년 꿈 키울 주말 나들이 어때요

‘과학과 기술의 만남 전북 과학축전’ 내일 전북도청 개막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드론 등 다양한 체험 공간 마련 전주 ‘독서대전’도 내일 개막...나만의 옛 책 만들기 등 다양

다음달 1일, 전북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호기심을 키우고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만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챙겨봐야 할 행사다.

제 12회 전북과학축전은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지역 최대 과학행사로, 다음달 1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과 기술의 만남, 전북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북도청 내외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청소년들은 크게 ▲상상(Imagination) ▲융합(Convergence) ▲재미(Enjoyment) 등 3개 마당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과학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가상(VR)·증강현실(AR), 로봇, 드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을 위해 우주항공, 이동

형(I19 소방안전, 기상, 환경, 과학수사, 천체관측 자동차, 천체관측 프로그램) 체험관 등도 조성됐고 가족 로봇 만들기대회, 항공우주대회 등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대화도 마련됐다.

같은 기간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도시 곳곳을 돌며 책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책 오래 읽기대회’나 ‘나만의 옛 책 만들기’ 체험은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동네책방을 돌며 추억 속 책을 찾는 체험도 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줄 만하다.

이외 대통령의 서재를 채운 16권의 추천도서 등 각종 기획·전시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학생들을 책과 친숙하게 하려는 부모들이라면 챙겨봐야 할 행사다.

독서대전 기간인 2일에는 생활 속에서

쉽게 영어를 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 3회 전주 청소년 영어 페스티벌’이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영어 발표대회 뿐 아니라 비보이, 케이팝 공연 등도 펼쳐지고 원어민 영어체험, 드론체험 등도 할 수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악 공연과 함께 노을에 취해요” 강진만 노을빛누리축제가 지난 29일 강진군 강진을 강진호수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매달 마지막 주 열리는 작은 음악회는 지역민들이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사물놀이·국악과 국악퓨전·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강진군 제공>

순창군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 잔치 성공사례 발표·문화공연 등

순창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귀농생활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순창군 귀농·귀촌협회는 30일 실내체육관에서 귀농·귀촌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문화공연을 비롯해 농촌의 혁신과 발전, 귀농·귀촌 정책에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 발표와 특강이 있었다.

또 양환욱 귀농·귀촌협의 회장의 ‘난 순창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이수영 귀농·귀촌 센터 소장의 ‘농촌으로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김규민 강사의 웃음치료와 문화행사로 귀농인의 숨은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이 이어져 귀농·귀촌인과 군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이 됐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동학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본격 움직임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동학농민혁명 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

이들은 앞서 전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도 지난 6월 ‘동학농민

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은 이날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와 부패·부패 적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근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시원이자 민족 대혁명인 만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kwangju.co.kr

서울 종로에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5억 모금 돌입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서울 종로에 세워진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서울 종로 전옥서(典獄署) 터에 건립하기로 하고 국민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전옥서는 종로 보신각 맞은편에 위치했던, 조선시대에 죄인을 수감하였던 감옥이다. 전봉준 장군은 이 곳에서 최후를 맞았다.

동상건립위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시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을 협의해 왔다. 동상 건립위는 5억원을 모금해 동상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상 건립위는 동학 관련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됐으며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대표를 맡았다.

첫 모금 설명회는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점을 고려해 내달 12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연다.

순조롭게 모금이 되면 내년 3월 제막식을 할 계획이다. 문의 02-2135-1894.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장흥군 수산행정 인력 전문성 갖춰야”

해양수산과 비전문직 9명

장흥군 수산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과의 경우 최근 인사 발령으로 해양수산과장(5급)을 비롯, 해양수산과 15명의 직원 중 9명이 수산직이 아닌, 행정직 등 비전문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장급(6급) 직원 4명 중 2명은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데다, 7급 이하 8명(수산직 4명)의 직원을 경력도 5년 이하에 불과하다.

장흥지역에만 3500명이 넘는 어민들이 42개 어촌계를 통해 9362ha에서 어업 활동을 하며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

의 3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나마 고참급 수산직(3명)도 연안바다가 없는 부산면(6급 팀장급 1명)과 안양면(6급 팀장급 2명)에 배치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9년 해양수산과 학원의 도 산하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수산직들이 이동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장흥군 안팎에서는 수산전문공무원이 부족해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 청평면 730㎡ 전원생활적합 1억1500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장성 북하면 백양물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악산면 특임리 해수욕장접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곡을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악산면 해인가 대지 60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별정우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평도사용 주택 600평 3억3천 상등요
- 남구 사동 2층주택 대지 125㎡ 건평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시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적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상가건물

- 화성동 다가구 8세대 전세 2억2천 1억5천선 명과 교환 원
- 중흥동 모텔 대지 184㎡ 건평 652㎡ 은행 3억9천 매도 천만원
- 금매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객실 27개 971㎡ 6억7천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중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천
- 영암 산호을 용당리 전 4628㎡ 공시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최고 투자처·파트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비금도 내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4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